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8월 26일(수) 10:00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

한동철 총무담당관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문화안전소방위원회와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차례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는 의원 공무국외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은 도의원 두 분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위원 8분을 포함해 모두 10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의장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과 목적, 방문 기간과 일정의 타당성, 출장 경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위원회는 출장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할 수 있고, 출장 목적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은 출장에 대하여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장 계획은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출장 후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한 뒤 의정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무국외 출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고 그 성과가 의정 활동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으로는 한 분이 추천될 경우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두 분이 추천될 경우에는 후보자 간 협의 또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 선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한동철 총무담당관
2년입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홍민호 위원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식이 높고 가장 연장자이신 전주대학교 법학과 이종걸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동의합니다.

한동철 총무담당관
홍민호 위원님께서 이존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더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 일동
없습니다.

한동철 총무담당관
네. 더 이상 추천하시는 분이 없으므로 이존걸 위원님께서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축하의 의미를 담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존걸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존걸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위원

장님 주재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존걸 위원장
전주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름은 이존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많이 안 서봐서 제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도 선출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꼭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정미 위원
부위원장님으로 법조계 남준희 변호사님을 추천드립니다.

이존걸 위원장
남준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해 주시면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남준희 위원
변호사는 직업상 참석 여부가 굉장히 불규칙해요. 내부위원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직업상 불규칙한 참석일 수 있어서요.

이존걸 위원장
그러면 남준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사전에 저하고 연락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존걸 위원장
그럼 남준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10분 중에서 7명이 참석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조례 제11조 제2항 단서에 보면 심사위원인 위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배제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별 공무국외출장 당사자인 위원님께서는 해당 상임위 안건 심사 시 자료를 이석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해야 할 안건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총 2건입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존걸 위원장
먼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 계신가요?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네

이존걸 위원장
반갑습니다. 김성수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6년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개요입니다. 출장국은 일본이며, 출장지역은 도쿄 일원입니다. 출장인원은 위원 8명과 수행직원 4명 등 총 12명입니다. 다음은 출장 목적입니다. 이번 출장은 일본의 재난안전산업과 방재시설, 첨단 재난대응 기술 및 복합문화시설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과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쿄 위기관리산업전(재난안전박람회, RISCON Tokyo 2026)을 참관하여 최신 재난안전 기술과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 참가하는 도내 기업의 전시·홍보 및 해외시장 진출 활동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 대응 로봇과 방재교육, 민관협력 및 복합문화시설 등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출장 내용입니다. 먼저, 재난·소방 분야입니다. 지진 계측과 방재 기술, 로봇·원격탐사·스마트센서 등 첨단기술의 재난현장 활용 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도의 재난 대응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재교육과 민관협력 분야입니다. 재난 대응 거점 운영과 시민 체험형 방재교육 사례, 민간기업의 공공안전 및 재난 대

응 기술 활용 사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문화 분야입니다. 복합문화시설의 조성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도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장 일정입니다. 9월 27일 출국하여 도쿄 일원의 재난안전 관련 기관과 시설, 문화시설 등을 방문하고, 10월 2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세부 방문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장자별 업무내용입니다. 위원장인 본인은 전체 출장과 연수활동을 총괄하고, 위원들께서는 재난안전, 방재교육 및 문화시설 등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조사와 현장 확인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관련 자료 수집과 현장 활동 지원, 일정 관리 및 출장경비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장 경비입니다. 의원 1인당 약 305만 6천 원, 직원 1인당 약 254만 9천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일비·식비·숙박비·항공운임 및 여행자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차량 임차료 등 공통경비는 별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환율에 따라 최종 경비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현장시찰을 통해 재난안전 기술과 방재교육, 민관협력 및 복합문화시설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재난 대응과 방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기관별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방문기관의 특성과 방문목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 도쿄 위기관리산업전입니다. 일본의 위기관리·재난안전산업 전시회로, 최신 재난안전 기술과 산업 동향을 확인하고, 도내 참가기업의 전시·홍보 및 해외시장 진출 활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도부터 해외 안전산업박람회에 도비 총 2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도쿄 안전산업박람회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에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상담 77건으로 실제 계약추진은 311억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극한환경 로봇연구소입니다. 지진 계측·방재 기술과 고온·유독가스 발생·붕괴 위험 등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활용되는 로봇과 센서 기술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셋째, 임해광역방재공원입니다.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방재 거점 운영체계와 시민 체험형 방재교육 사례를 확인하여 우리 도의 재난 대응체계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넷째, 도요타 통상입니다. 스마트시티와 AI 기반 공공안전, 재난 대응 기술과 사업화 사례를 확인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민관협력 방안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섯째, 카도카와 무사시노 박물관입니다. 도서관·미술관·박물관 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시설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도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존걸 위원장
김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김성수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월 7일에 전부 개정이 된 이후에 첫 위원회가 열렸다는 점이 의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이제 이런 어떤 외유성이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좀 오해나 그런 것들을 좀 불필요하게 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볼 것들이 좀 있는데 출장 일정 중에 대부분 접촉 예정 인물이 관리센터 담당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직위를 갖고 있고 어떤 일을 담당하시고 어떤 것들을 좀 나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정이 되는 그 부분이 좀 어려우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현재 담당 저희가 접촉하는 방문하는 기관과 그리고 담당 직원들은 저희가 다 확정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관들을 섭외를 할 때 외부 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대부분 저희 테크노파크나 관련된 저희 자체적으로 기관 섭외를 엄선해서 했고요. 대부분의 일정들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도카와 무사시노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역 개발하고 연계가 있는 분야이고 복합 문화시설로서 현지에서 단순히 관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시청 직원하고 저희가 만나서 관련된 설명도 좀 듣고 내용도 간담회를 하기로 지금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단순히 자료 표기가 아마 이제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일정대로 확정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가 따로 있어서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이번 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극한환경로봇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전문 통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역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통역이 제대로 돼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렇기 때문에 205만 원의 별도의 이제 통역 및 가이드 비용이 저희가 편성이 되었고 또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저희가 좀 준비해서 내실 있게 저희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했고요. 실명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카도카와 박물관 같은 경우는 마이다호기타 실장을 저희가 만나게 됐구요. 죄송합니다. 지금 일본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군경에 사실 도쿄 군경 사무실이 도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협조를 좀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홍민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추후에라도 감사나 도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좀 더 구체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출장 일정이 6일인데 출장이 당연히 근무이기 때문에 이제 좀 먼 거리 이동하는 것도 피로하실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출장을 이제 가시는 날이 9월 27일 일요일이고 10월 2일날 이제 금요일에 돌아오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출발하시는 날이나 당일 돌아오시는 날에는 전혀 일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9월 28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 카도카와 무사시노 박물관은 이제 방문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은 이게 다 세금으로 쓰이는 것 만큼 좀 출장의 밀도성을 조금 더 높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단지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현지도 기관들이 좀 휴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 방문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가 인천공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공항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는 거리, 또 27일이 공교롭게 연휴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저희도 좀 일찍 출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오는 날도 공항에 최소 2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되는 일정이어서 다른 일정을 잡기에는 조금 도쿄의 교통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쩔지 몰라서 부득이하게 좀 잡지 못했던 점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저희가 공무 국외 일정을 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정 중에 도쿄 위기관리산업전이 내용이 눈여겨 봐지더라고요 이제 전라북도 기업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가시면서 단순히 이 기업들 어깨를 토닥거리는 일정이신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특별한 어떤 지원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 산업전을 통해서 전라북도와 함께 기대를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사실 저희가 국내 의정활동을 할 때에도 도비가 지원되는 특히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현장들은 현지 의정활동을 많이 가고는 합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서 자주 가지는 못하고 또 저도 문화안전소방위원회를 올해 지금 3년째 하고 있지만 이 위기관리산업전과 같은 해외 박람회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도 현지에 가서 보면 행정안전부가 10개 기업, 경남이 5개 기업, 충남이 5개 기업 그리고 전북이 5개 기업해서 총 25개의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통합한국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도비가 8천만원이 저희가 들어가고 있고 아마 가서 기업들의 애로사항들 또 현지를 보게 되면 조금 더 개선점들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심사 할 때 좀 더 지원이 좀 폭넓게 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에게도 좋은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서 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최대한 정책과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준희 위원
출장 다녀오시면 연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나보네요. 누가 작성합니까?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보통 이제 관행적으로는 직원들이 해주시기도 했지만 이번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준비를 했고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녀와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공유도 하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수 결과물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준희 위원
작성한 연구 보고서는 어디 도청에 제출해요?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
이제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합니다.

김민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앞으로 우리 위원회 2년간 운영되는데 상임위별로 출장을 갔다오면 보고서를 저희 위원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으로 하시죠.
상임위원회 향후에 공무 출장 있을 때 얼마나 잘 다녀왔는지 검토하고 차후 공무국외출장 심사하는 데 좀 참고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존걸 위원장
갔다 오셔가지고 보고할 때 위원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준희 위원
우리 위원회에 하게 돼 있어요?

한동철 총무담당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심사받고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합니다

남준희 위원
그런 후속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민수 위원
아까 통역비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통역비가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가이드 겸 통역비, 기타 비용입니다.

홍민호 위원
예. 금액이 나와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기준 환율이 2026년 7월 31일 기준인데 사실 지금 환율 변동이 심해서 그 사이에 한 5% 이상 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럼 반영이 되겠죠?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그렇습니다.

홍민호 위원
그럼 실제 금액은 이거보다 조금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가 되긴 하겠네요. 차이는 있겠지만.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저희가 이제 환전하고 하는 시점에 비해서 좀 환율이 기준 일자보다 환전 시점에 환율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비용이 원화로 따지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홍민호 위원
13페이지에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13페이지에 비용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식비(b)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언뜻 보면은 이제 107USD 5일수를 더하고 인원이 8명이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이게 4,820USD 달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계산기를 잠깐 아까 해보니까 4,280USD이라서 이건 단순 오타 같기는 한데 아니면 제가 계산을 지금 잘못한 건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근데 옆에 원화는 또 4280USD를 기준으로 쓰여 있거든요.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홍민호 위원
그래서 오타인 것 같고 같은 의미로 또 하나 여쭤보면은 위에 일비가 있는데 일비는 상한이 35USD 달러고 일수가 6일, 그리고 인원이 8명이거든요. 그래서 곱해보니까 이거는 산출 금액이 1,680USD 달러로 보여서 이거는 금액 차이가 좀 커가지고 제가 좀 산식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주은기 주무관
저희가 차량 배차를 하게 되면 일비를 반값을 해야 돼가지고요. 거기다가 0.5가 곱해져가지고 반값입니다.

홍민호 위원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식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오타로 보이기도 했고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서 상관없는데 일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보이는 어떤 계산식하고 실제 산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건 좀 부기를 해 주시는 게 좀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준희 위원
이번에 처음이라서 제가 그냥 솔직히 호기심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여기 다음 농업위원회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체제비를 보니까 항공 운임이나 준비금은 의원들이나 전문위원이 똑같은데 식비하고 숙박비가 왜 차이가 나요?

주은기 주무관
저희가 공무원 여비 규정이 다른데요. 여비 규정이 의원님과 직원들하고 여비 규정이 다릅니다.

남준희 위원
숙박비가 싱글룸이고 직원들은 더블룸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주은기 주무관
네

남준희 위원
그러면 식비가 차이가 나면 먹는 것도 다릅니까? 의원들 먹는 거 따로 하고 직원들 먹는 거 따로 해요?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현실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한 15년 전에요. 전국에 있는 기자들하고 한 20여 명이 도쿄 고베 이런 쪽에 지진 방재 취재를 갔다 왔었는데요. 이걸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임해광역방재공원 이런 데 안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갔던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일정이 혹시라도 변동이 있으면 다른 곳도 많이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갔다온 곳에는.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네 굉장히 저한테 좋은 훈련이었고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개별로 추천해 주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존걸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날 카도카와 무사시노 박물관에 방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통 월요일은 박물관이 닫지 않나요?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화요일날 휴무라고 합니다. 시청 직원까지 만나기로 저희가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존걸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계획 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 투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7명 중에 7명이 다 찬성하셨기 때문에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
내실 있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준희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결의가 구속력이 있나요? 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한동철 총무담당관
여기서 부결되면 못 가는 겁니다.

남준희 위원
그러면은 찬반 의견을 얘기할 때 위원회 위원장님 있는 곳에서 거수로 하지 마시고 무기명으로 하시죠. 이게 구속력이 있고 여기에서 결정이 될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의견 제시하고 권고적 효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부결돼서 못 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공개적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정미 위원
궁금한 게 여기서 승인되면 그때 여행사 선정하는 건가요?

김민수 위원
미리 섭외는 하죠.

남관우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왜 발생이 되냐면 윤석열 정부 있을 때 전국 광역 기초 전부 다 수사 의뢰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수사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게 하는 거는 성과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간다고 하면 우리하고 해서 MOU체결해서 우리가 갔다 와서 그냥 보고오는 것 많은 아닙니다.

남준희 위원
단순히 전라북도 의회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외유성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게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제가 위원회 위촉 받고 며칠 전에 검색해 봤는데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최근에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의원 임기가 만료되기 1년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해외 학술 세미나가 있다든지 상대방이 초청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제한하는 조례를 대전시에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게 전라북도의회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남규 위원
남 변호사의 이제 국외 출장 위원회로서 소견이 뭐예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또 생각을 알아야 앞으로 우리 공무출장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나는 남 변호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단점도 장점도 다 파악해 보면서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이런 것까지 다 알면서 해야 합니다. 저는 의회 생활을 지금 시의원 6선 도의원 초선입니다.
다 겪어봤어요. 좋은 사례 나쁜 사례 왜 이런 원인이 있었는가?
첫째는 출장비가 적어요. 개인이 내야 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을 이렇게 또 부서를 좀 모셔 갖고 수평적으로 맞다 보니까 아까 단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기관 섭외하는데 네덜란드 가는데 한 사람 당 거의 50만 원을 줘요.
20명이 갔으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왜 1시간 해설을 해 주는데 네덜란드의 간척지에 갔는데 새만금 때문에 갔는데 둑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이 환율 차이와 이런 것들 때문에 섭외에서 힘들고 두 번째 전문 여행사가 없습니다. 일본 하면 일본 전문 여행사가 있어서 섭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의 전문 여행사도 북해도에 갔는데 북해도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그 직원들과의 미팅을 할 지를 몰라요. 왜 여행을 이게 업이니까 기관 대 기관에 이런 것들이 익숙지 않아 갖고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더 앞으로는 심도 있는 남 변호사님의 얘기를 경청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서로가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남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남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 공무국외출장 회의에 처음 참석해서 비용이나 이런 걸 보니까 다소간에 의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공무출장이 그야말로 공무와 관련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 세금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적정하게 집행되고 그게 효율적으로 발생이 되고 이게 도의회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 이걸 여기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김남규 위원
이게 저도 남 변호사가 하고 싶은 것을 아까 김성수 위원장하고 질문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전북 도내에 도의원들이 가져야 할 역량으로서의 왜 문화는 안 가고 소방만 가냐 문화를 간다면 지금은 컬처를 갈 것이냐 왜냐하면 문화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과 우리 문제점과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쌍방 간에 그런 것들을 대합니다.

이존걸 위원장
저희 교수 같은 경우는 퇴직하기 3년 전까지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배워서 연구해서 학생들한테 쓸 수 있는 기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년 남기고 간다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한테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1년 남은 위원들한테는 하지 말자 그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관우 위원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우리 공무국외출장은 사실 의원님들의 역량도 있고 갔다 와서 서로 간에 지역 발전에 대해서 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가는 그 여비 문제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이상을 내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여비를 우리가 이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돼야 제가 이제 생각을 근데 이제 우리 도민이나 무슨 소리하나 선출직 나오면서 공습도 올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남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공무출장 위원회에 저희가 견제를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현직 판사 시절에 독일에 1년 동안 장기 연수 갔다 왔거든요. 다녀오면 법원에서 학술 논문 등재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걸 조건으로 보내주고 매달 연구 보고서 쓰게 합니다. 국민 세금 쓰는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제가 잠깐 나와서 뭘 다녀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의견 제시를 하고 아까도 우리 홍 변호사 얘기처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환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남관우 위원

그럼요.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존걸 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관우 의원님께서 같은 위원이시기 때문에 안건 심사 동안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권요안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요안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도의회 정책연수 심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역 농산물 유통체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전북 농업·복지 현안 대응을 위한 공무 국외 정책연수 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의 추진배경과 목적입니다. 최근 농업·농촌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인력 부족, 생산비와 물류비 상승 등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은 기상여건과 재배면적, 작황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이 큰 만큼, 가격이 폭락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단계부터 출하·유통까지 연계한 선제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재배면적과 생육관리, 생산량 전망, 계약거래, 출하조절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급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농산물 수급조절 지원, 밭작물 주산지 수급 거버넌스, 산지유통센터(APC), 생산자 조직화와 통합마케팅, 우수농산물 광역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북형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생산계획에서 재배면적·생육관리, 계약재배, 산지유통, 출하조절, 도매시장, 광역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적인 수급·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복지환경위원회도 지난 6월 「전북형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생산자와 농협, 행정, 전문가 등과 함께 전북의 수급관리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수는 새로운 주제를 찾아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도내에서 먼저 논의한 광역수급관리센터 구축 과제를 실제 해외 운영사례와 비교·검토하기 위한 후속 정책연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로컬푸드 역시 직매장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품질·안전성 관리, 가공·외식, 농업체험과 식농교육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고령화에 대응하여 의료·요양·돌봄·주거가 지역사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연수에서는 농산물 수급·유통, 로컬푸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전북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현지 운영체계를 조사하고, 이를 의정활동과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수 국가를 일본 홋카이도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홋카이도는 일본 최대의 농업지역으로 광역행정기관과 농협조직, 연구기관, 도매시장, 물류기관 등이 생산에서 유통·물류·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쿠렌을 중심으로 지역농협과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공동선별·공동출하와 광역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삿포로시 중앙도매시장과 물류기관 등을 통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어지는 유통·물류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NARO 홋카이도농업연구센터에서는 농업기상과 생육정보, 스마트농업 등 생산단계의 데이터와 기술이 농업현장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분야에서는 호쿠렌이 운영하는 쿠루루노모리를 통해 농산물 직매뿐만 아니라 가공·외식·체험·식농교육과 생산자·소비자 교류를 결합한 운영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홋카이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포괄케어도 발전되어 있어 농업과 복지를 함께 소관하는 우리 위원회의 연구목적을 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 선진지역을 견학하기 위해 홋카이도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전북에서 현재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정책과제를 현장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문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주제와 방문기관입니다. 이번 연수는 세 가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광역 농산물 수급조절 및 농산물 유통체계입니다. 이번 연수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과제입니다. 먼저 홋카이도청 농정부에서는 광역단위 농산물 수급정책과 지방정부, 농협, 생산자단체 간 역할분담, 생산·출하정보 관리 및 수급불안 발생 시 대응체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호쿠렌에서는 지역농협과 생산자 조직화, 품목별 생산·출하정보 공유, 계약생산과 공동선별·공동출하, 광역 공동판매 등의 운영방식을 조사하겠습니다.

삿포로시 중앙도매시장에서는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이 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지로 공급되는 과정과 반입량·가격·출하정보 관리, 산지유통시설과 도매시장 간 연계체계를 확인하겠습니다.

호쿠렌운수 토마코마이 지점에서는 산지와 지역농협, 유통시설, 소비지를 연결하는 광역 운송체계와 공동수송, 물류정보 관리 및 장거리 운송 효율화 사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홋카이도농업연구센터에서는 농업기상과 작황·생육정보의 수집·활용, 생산량 예측, AI·스마트농업 기술 및 연구성과의 농업현장 실증체계를 조사하겠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북형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주산지협의체 - 시군 - 농협 - 생산자단체 - APC - 통합마케팅조직 - 도매시장 - 광역물류를 연결하는 전북형 광역 수급·유통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정책입니다. 전북은 로컬푸드 분야에서 선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매장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청 농정부에서는 지산지소 정책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품질·안전성 관리 및 식농교육 정책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호쿠렌 쿠루루노모리에서는 참여농가의 생산·출하관리, 계절별 품목 확보, 농산물 품질관리와 함께 직매장·농가레스토랑·가공·농업체험·식농교육을 하나의 공간에서 연계하는 운영방식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북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단순 판매시설에서 지역농산물 직매와 가공·외식·농업체험·식농교육·생산자와 소비자 교류가 결합된 지역 먹거리 복합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 소비자 신뢰구축, 연중 생산기반 지원, 직매장 지원사업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경 로컬푸드 관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고령사회 대응 복지정책입니다. 츠시마 의료복지그룹의 지역포괄케어 시설에서는 의료·요양·재활·재가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령자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체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코루크 에베츠에서는 노인요양과 장애인 직업재활, 일자리, 지역사회 교류 등이 결합된 공동체형 복지모델을 조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서 의료·요양·재활·재가서비스 간 연계와 노인·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출장기간은 2026년 10월 4일에서 8일까지 5일간이며 출장국은 일본이며 주요기관 섭외는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과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기관별 면담 대상

과 세부 방문시간은 수용 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최종 보완할 계획입니다.
출장자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 8분과 전문위원실 직원 5명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입니다. 출장 일정은 10월 4일 일요일에 출발하여 일본에서 3일동안 정책사례 조사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10월 8일 목요일에 복귀하는 일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출장자별 업무 내용은 위원장은 총괄을 담당하고 위원회 의원들은 광역 농산물 수급조절 및 공공 유통체계, 로컬푸드 활성화 및 친환경 농산물 정책,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고령사회 대응 복지정책 등에 대한 자료조사와 준비를 담당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자료수집과 보좌, 경비 및 일정관리, 사진, 영상 등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출장 경비는 의원 1인당 232만 원, 직원 1인당 205만 원을 의회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기대효과와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첫째, 현지에서 확인한 생산·출하·유통·물류 및 정보관리체계를 전북형 광역수급관리센터의 기능과 운영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비교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수급조절 지원, 밭작물 주산지 수급 거버넌스, APC,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광역마케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생산계획 - 계약재배 - 공동선별 - 출하조절 - 공동판매 - 광역물류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쿠루루노모리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전북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생산·소비 교류, 소비자 신뢰 구축, 연중 생산기반 지원사업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포괄케어 현장에서 확인한 의료·요양·재활·재가서비스 연계방식을 전북의 통합돌봄 정책과 비교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조례 및 정책 제안, 관련 부서 업무협의 등에 활용하고, 실제 정책 반영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드린 주민의견 수렴 결과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의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출장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 방문기관과 면담 대상의 구체성, 출장 성과와 정책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기관별 조사목적과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기관별 면담 대상과 세부일정은 현재 협의 중인 사항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장경비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공식 일정 외 개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등 공적 경비와 사적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의견에서 제기된 사항은 이번 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받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출장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해외의 시설 몇 곳을 둘러보기 위한 견학성 일정이 아닙니다. 특히 전북형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 구축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도내 생산자·농협·행정·전문가와 함께 먼저 논의한 정책과제이며, 이번 연수는 그 논의를 실제 광역 농업지역의 운영사례와 비교하여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정책연수입니다.
아울러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로컬푸드 정책의 고도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주요 현안도 함께 조사하고자 합니다. 현지에서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제도와 여건에 맞는 부분이 무엇인지 비교·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사항을 선별하여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번 연수의 목적입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무국외출장인 만큼 출장 자체를 성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귀국 이후 무엇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는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실제 도정에 어떤 부분이 반영되었는지까지 확인하여 연수의 성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위원님들의 고견을 연수 준비와 사후 활용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존걸 위원장

권요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요안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오늘 함께 동행하신 우리 한준희 부위원장님 하고 윤해아 의원님입니다.

이존걸 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민호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방문 지역이 이제 홋카이도 삿포로로 이제 확인되는데 기존에도 삿포로 지역을 이 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나요?

권요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제가 그전에 방문한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3년 전에 방문했습니다.

홍민호 위원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가 이 업무 내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광역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방안 마련,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생산자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한 번 우리가 견학해서 공부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성과는 아닌 것 같고 추후 이 삿포로 관련 기관하고 후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가지고서 이쪽을 방문한다거나 MOU가 체결되어 있다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견학을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얻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삿포로와도 이제 그 지역과도 과거나 또는 사후로 연계돼서 어떤 업무 협약 같은 것들을 좀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권요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그런 부분은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은 아까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북도가 이제 광역 농산물 수급 조절 센터가 없는데 출발을 하려고 도가 인력도 배치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광역 농산물 수급 조절 센터가 없었는데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광역 농산물 수급 조절 센터는 지금은 이제 농산물이 가격이 하락하고 나면 그걸 보상해 주는 가격 지원 정책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광역 농산물 수급 조절 센터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출하까지를 다 관리하면서 수급 조절을 통해가지고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을 선제적으로 시키려고 하는 센터예요.
그런 거 관련돼가지고 선진지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무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민호 위원
예. 출장 가서 이제 현지에서 어떻게 이제 담당자들을 만나서 하는 역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요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홍민호 위원
네. 그리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전북이 이제 농도인 만큼 이제 그것들을 이제 삿포로의 어떤 보면 좀 아까 말씀하신 광역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배워온다 견학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또 농업은 또 중요한 게 기후나 기온이 되게 고려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 광역 농산물 유통 체계는 사포로가 특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도에도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삿포로는 전북과는 달리 겨울에 훨씬 춥고 여름에는 한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산물을 유통을 하고 보관하고 저온 창고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전북과는 좀 기후나 온도 부분에서 좀 현실이 많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좀 검토하신 게 있나요?

권요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현재 이제 저희가 세 가지로 연수 목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 농산물 수급 조절과 관련된 문제, 지역사회 통합 분석 문제, 로컬 푸드 문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결국에는 이제 4박 5일인데 거기 출발하는 날과 도착하는 날 빼면 3일이거든요. 3일 동안 기관 8개를 방문하는데 그 세 가지 목적에 충실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민호 위원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여덟 분의 의원분들께서 이제 출장을 가시는 것 같고 목적이 이제 각 세 가지가 있고 두 분씩 이제 담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이 여섯 분의 위원분들이 세 가지 목적을 갖고 계신데 혹시 나누는 기준이나 어떤 그런 희망 같은 게 있었나요?

권요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우리 8명의 의원님들인데 농업 복지 환경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를테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빼고 농업하고 복지 분야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간 거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그래도 조금 전문성이 있는 의원님들은 농업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윤해아 의원님처럼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민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4페이지에 출장 일정이 있고 그리고 40페이지에 주민 의견 검토 반영 내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민 검토 의견 중에 미반영된 부분이 이제 접촉 예정 인물이 협의 단계로 확정 후 보완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 예정 인물이나 이 직책 포함을 보면은 사실 8개의 기관 전부 다 그냥 관리자 협의 중, 담당자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럼 8개 기관 중에 어떤 확정이 되신 분이 아무도 없나요?

권요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지금 저희가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하고 유통과장님 그 다음에 농정부는 농정부 과장님 그리고 여기 농업연구센터는 책임연구원입니다. 그다음에 홋카렌 농협은 농산물 유통 판매 부장입니다. 그리고 홋카렌 쿠루루노모리 같은 경우 운영 판매 부장님, 마지막에 이제 홋카렌 운수 주식회사는 물류 담당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복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의료 복지 담당 부장님,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연계 단체 담당 부장님 이렇게 하려고 생각입니다.

홍민호 위원
예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관의 이제 담당자의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오가겠구나를 어느 정도 유추를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담당자로만 되어 있으면 사실 이게 과연 이 목적에 맞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것인지 좀 알 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미반영이 되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은 좀 추후에 이제 출장이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요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홍민호 변호사에 이어서 권요안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홋카이도 북해도를 세 번 이상 농업 관광 힐링으로 다녀왔습니다. 유심히 농업 분야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로컬 푸드를 말하는데 로컬 푸드를 사실은 전라북도 완주가 최고 발달된 곳인데 여기에 오늘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일정이 너무나 빡빡해서 좀 뺐으면 좋겠다. 어차피 힐링도 있을 수 있고 북해도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큐수와 더불어 힐링 요양입니다. 즉 꽃이 발달되어 있고 화훼가 발달돼 있고 관광 코스가 좋습니다. 그 드문드문 이제 창고가 있어가지고 농업을 보관하는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농기계가 발달돼 있는 회사가 있어요. 창원에 가면 대동 농기계가 있거든. 근데 요새 농업이 이양기, 트랙터, 로봇 자율로 현대자동차나 수소 문제나 이런 걸로 위원장님 지역구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지 전문 농업 기계 회사를 갔으면 좋겠다. 일정 중에 조율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좀 권하고 싶고 파머컬처와 관광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왜냐하면 전라북도 농업수산을 전체 다 보이기 때문에. 어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신안이 그런 것들을 좀 자주 해왔죠. 신안이나 진도나 이런 쪽에요. 그래서 북해도의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 이렇게 일정표를 보니까 가슴으로 닿지 않아요. 도민들의 농업하는 분들한테는 상임위원회는 해당될지 몰라서 그래서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일정을 확 줄이면서 농업의 기계라든지 그쪽 북해도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전북대학교 농대 교수나 원광대학교 농대 교수 중에는 북해도 농업대학에서 전공한 교수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자문도 받으면서 했을 때 이렇게 어떤 소통이나 관계성도 이어가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또 좋은 기관이 있으면 MOU를 체결해서 일본은 가까우니까 지속 가능하게 그래도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한 의원들이 이렇게 공무 연수가 좀 MOU나 이렇게 생산적인 것까지 끌어올 수 있도록 좀 농업복지환경위원회가 그런 결실을 맺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권요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북연구원의 황영모 박사님이 그곳에 계셨었거든요. 그 부분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언론에서 최근에 이제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알려져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전라북도 경제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꼭 해외로 나가서 공무국외 출장을 해야겠느냐라는 지적이 몇 군데 있었죠. 보셨죠. 위원장님이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권요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공무를 하는 국외 출장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우려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4박 5일 동안 선진 사례를 좀 배워서 우리 전북 농장, 전북 복지 분야에 벤치마킹하고,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연수는 연수답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기관 방문 중심으로, 외유성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연수는 연수답게 준비하고 그 이후에도 좀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의 사례 같은 부분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좀 더 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광역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공공 유통 체계 이런 정책 연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면 집행부 직원들도 담당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들 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직원들 한 명 정도 이렇게 조인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건데 의회 분들만 가시잖아요.

권요안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스마트 농산과장님하고 통합 돌봄 관련된 과장님하고 두 분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도 도청에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일은 의회하고 집행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책을 결국 수행하는 건 집행부잖아요. 꼭 같이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존걸 위원장
다른 의원님들은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농업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찬반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위해서 위원장 및 관계자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호 위원
아까 그 대전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조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13조 2항에 있기는 해요.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홍민호 위원
이번에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출장을 가기 위한 심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갔다 오고 나서 출장 보고서를 작성한 거에 대한 심의를 따로 하겠네요. 그러면은 10월에 가시니까 11월이나 12월에 또 이게 열리는 건가요?

한동철 총무담당관
근데 이제 그게 서면 심사로 해도 되고 대면 심사로 되는데 위원장이 결정하셔가지고 대부분 서면으로 그동안 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강화가 돼서 대면 심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존걸 위원장
나중에 갔다 와서 결과에 대한 심사도 하신다고 했는데 심사가 대면으로 하냐 아니면은 서면으로 하자 하는 건데요. 이미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의견을 진행하는 게 있다는 지금 이렇게 대면 심사하다 보면 손으로 이렇게 대 주니까 좀 더 내실 있게 검토를 하려면 서면 심사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직접 이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질의 응답도 해보고 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갔다 온 다음에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홍민호 위원
다음 출장을 위해서 그거를 제시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남준희 위원
검토해서 그 다음 출장에 참고를 하자는 취지죠.

김남규 위원

갔다 근데 후에하는 보고서는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권고성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적됐다. 다 똑같은 보고서가 똑같이 대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감사 지적을 받은 거죠. 자기들이 쓰지 않고 전문위원이나 직원들한테 대필하는 경우 그것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이지 후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홍민호 위원

네 이제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대표 의원이 이제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을 또 하긴 해야 되는 걸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존걸 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 건에 대해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